올해 최고의 게임은 펄어비스 '붉은사막'… 역대 최다 8관왕

대한민국 게임대상

펄어비스 '붉은사막' 대통령상 수상
엔씨 '아이온2', 최우수상·인기상
최휘영 "게임, K-컬처 400조 주역"
인디게임 지원 확대, 펀드·융자 조성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통령 상을 받은 펄어비스 허진영 PD가 소감을 전하고 있다. /부산=최빛나 기자

펄어비스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이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새 역사를 썼다. 기술·창작상과 올해 신설된 글로벌게임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경신했다.

1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게임과 개발자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의 주인공은 펄어비스였다. '붉은사막'은 기술·창작상에서 캐릭터, 그래픽, 기획·시나리오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여기에 이현 성우가 인기성우상을 수상했으며, 펄어비스는 우수개발자상과 올해 신설된 글로벌게임상까지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상까지 거머쥐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새롭게 썼다. 앞서 2019년 '로스트아크'와 2023년 'P의 거짓' 등이 기록한 6관왕을 넘어선 성과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광활한 게임 세계와 역동적인 전투 시스템, 정교한 그래픽과 환경 상호작용 등을 구현하며 국내 게임 개발 기술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흥행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출시된 '붉은사막'은 출시 첫날 글로벌 누적 판매량 200만장을 기록한 데 이어 출시 83일 만에 600만장을 돌파했다. 신규 지식재산권(IP)으로 세계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설된 글로벌게임상까지 수상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모바일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심에서 글로벌 PC·콘솔 시장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게임대상에는 총 12개 작품이 본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펄어비스 '붉은사막'과 엔씨 '아이온2'를 비롯해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컴투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조이시티 등의 작품이 경쟁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엔씨의 '아이온2'가 차지했다. '아이온2'는 인기게임상도 수상했다.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카카오게임즈 '도깨비의세계', 크래프톤 '미메시스',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등 3개 작품에 돌아갔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다이빙스튜디오의 '그날의 신문'이 굿게임상을 수상했으며, 인디게임상은 '골목길'이 차지했다. 이스포츠발전상은 님블뉴런, 사회공헌우수상은 엔씨소프트가 각각 받았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적인 산업이자 콘텐츠 분야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게임산업이 K-컬처 400조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대작 게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인디게임 기획·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게임 분야 청년인턴십 지원 규모 역시 500명까지 늘린다.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마련된 1200억원 규모의 IP 펀드에 이어 내년에는 콘텐츠 분야에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와 6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I-RAN이 완성차 이송… SKT, 전파방송 기술대상 장관상

5년 연속 장관상 수상 기록
자율주행 기능 없는 차량도 이송
내년 KG모빌리티 물류 현장 적용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7회 전파방송 기술대상'에서 AI-RAN 기반 완성차 무인 자율 이송 기술(AVM)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장관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AI-RAN 기반 AVM 기술은 지난달 글로벌 유무선 네트워크 시상식인 '네트워크 엑스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2관왕에 올랐다.



SK텔레콤 류탁기 네트워크기술담당(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전파방송 기술대상에서 수상하고 있다. /SK텔레콤

이 기술은 차량이 아닌 AI-RAN이 현장을 인지하고 판단해 차량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존 완성차 물류는 사람 손에 의존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에는 자동화를 적용할 수 없었다. 회사 측은 통신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인 AI-RAN으로 이같은 한계를 풀어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 설치된 라이다(LiDAR) 센서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AI-RAN 기지국으로 전송하면, 기지국은 이를 토대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 경로와 주행 명령을 계산한다. 이어 5G SA 통신으로 차량에 조향·가속·감속·변속 등 제어 신호를 직접 전달한다.

이 기술은 지난해 SK텔레콤이 에치에프알, 서울로보틱스와 함께 수행한 '엣지 AI 기반 자율주행 PoC' 및 AI-RAN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확보했다. SK텔레콤이 엣지 AI 및 AI-RAN 핵심 기술을, 에치에프알이 5G 특화망 기지국 장비를, 서울로보틱스는 라이다 기반 공간 인지 및 차량 제어 기술을 각각 맡아 실제 주차 시설에서 자율 주차 운영 공동 실증을 진행했다.

실증 결과, 센서 데이터 수집부터 AI 판단 및 주행 명령 전달까지 전 과정이 무인 차량 제어에 필요한 시간 안에 끝나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도 무인으로 이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이렇게 확보한 기술을 올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실증사업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에치에프알의 AI-RAN을 기반으로 서울로보틱스와 함께 판교에 피지컬 AI 리빙랩을 구축해 무인 자율 이송 서비스를 검증하고 있다.

2차년도인 2027년에는 에릭슨의 5G 기술이 집약된 AI-RAN 선도망을 KG모빌리티 평택공장에 구축해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AI-RAN이 피지컬 AI 실행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산업 현장에서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AI-RAN 기반 AVM 기술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6G 비전 페스트 2026'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LG U+, AI 활용 IPTV 고장 사전 관리

IPTV 셋톱박스 420만대에
'AI 선제조치 시스템' 적용

LG유플러스는 IPTV 셋톱박스 420만대에 'AI 선제조치 시스템'을 적용해 사전 예방형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AI 선제조치 시스템은 IPTV 단말과 홈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품질 데이터를 분석해 화면 끊김·화질 저하 등 이상 징후를 고객보다 먼저 탐지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인공지능(AI)이 과거 장애 이력과 정상 이용 패턴을 학습해 품질 저하 가능성을 예측하며, 필요 시 재연결·설정 최적화·원격 점검 등을 자동 수행한다.

이번 체계는 기존 품질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 체감품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했다. 품질관리의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UHD4 셋톱박스 약 90만대를 대상으로 AI 선제조치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결과, 문제 원인 분석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최대 3일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현재 AI 학습 데이터를 5배 확대하고, 월 평균 370만건 이상의 품질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연간 4000만건 이상의 사전 품질 점검과 선제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선제조치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관리 선제조치 대시보드'도 구축했다. 대시보드를 통해 전체 운영 수량, 이상 탐지 단말, 조치 성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인터넷 무선공유기(AP)에도 AI 선제조치 기능을 순차 적용해 IP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KT-서울대병원, 의료 AI로봇 현장실증

어린이 환자 위한 비임상 중심 진행
보안 프로토콜로 개인정보 엄격 보호

KT는 서울대병원과 손잡고 어린이 환자의 케어와 의료진의 업무 지원 등 AI 로봇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치료 전후 어린이 환자를 위한 ▲대기 시간과 치료 전후 단계의 대화와 놀이 ▲검사·치료 과정에 대한 눈높이 맞춤 설명 ▲목적지 안내·동행 등 어린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임상 서비스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반복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피지컬 AI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의료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증의 세부 내용은 서울대병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된다.

KT는 한국어 대화 및 AI 에이전트 등 자체 AI 기술을 활용해 병원 현장에 맞는 실증 시나리오 설계와 운영을 총괄한다. 이 밖에 실증을 위한 병원 내 네트워크와 로봇 이동 동선 등 현장 환경을 점검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대병원은 어린이 환자와 의료진 관점에서 적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검사·치료 과정에서 활용할 의료 콘텐츠를 제공·검수한다. 또한 로봇의 이동과 충전·보관, 운영 시간과 방식, 안전·감염관리 등 실증 환경을 마련하고 어린이 환자·보호자·의료진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모든 실증 기간에는 참여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며, 참여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 자발적 신청으로만 이루어진다.

또한 의무기록 등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의무기록에 접근하지 않으며 모든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다.

/조민선 기자

LG헬로비전
외국인 전용 요금제 선봬

LG헬로비전은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이 월 2만원대 외국인 전용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요금제 상품은 외국인 수요에 맞춘 특화 서비스로 알뜰폰 고객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선보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중고폰을 선호하는 만큼, 이들에게 맞춤형 유심·eSIM 요금제를 제공해 알뜰폰 체감 혜택을 높이 계획이다.

회사는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 등과 인터뷰를 통해 요금제 가입 과정에서 개선점을 발굴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의 요금제 선택 기준이 가격과 데이터로 나타났으며, 어려운 통신용어와 전화 상담절차 등 개선점에 주목하게 됐다.

이에 실속형 요금제와 언어 장벽을 낮춘 셀프개통 서비스를 선보인다. 먼저 요금제는 월 2만2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 걱정없는 유심 7'이다.

/조민선 기자